

**<아시아연구소 현지조사 지원사업:
도쿄도립중앙도서관, 일본국회도서관, 도쿄기타구중앙도서관 방문>**

이원규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석사과정
2022-27198

<아시아연구소 현지조사 지원 사업>의 지원 덕분에 1월 8일부터 1월 29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일본 도쿄를 방문해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탐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본 현지 조사는 소작쟁의를 중심으로 1920년대 일본제국 본국의 농촌 사회경제를 탐색함으로써, 일본의 사례가 식민지 조선과 비교해 지니는 특징이 무엇인지, 나아가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어떤 구조적 요인에서 발원하는지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는 이를 통해 지배자 본국과 피지배자 식민지라는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서서, 동아시아 소농사회로서 일본과 조선 두 사회가 공유한 특성, 그리고 식민지배가 조선 사회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현지조사는 일반 이용자 자격으로 일본의 공립도서관들을 방문해 도서관의 온라인 DB, 소장자료를 탐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본 정부 및 학술기관과의 별다른 연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일본국회도서관(日本国会図書館)의 경우 회원증을 발급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었고, 이외 도쿄도립중앙도서관(東京都立中央図書館), 도쿄기타구중앙도서관(東京北区中央図書館)의 경우 매일매일 교체되는 출입증을 부여받은 후 이용하면 되었다. 연구자가 자료를 찾는 데 헤매고 있을 시, 도서관 사서들은 문헌을 찾아주거나, 온라인DB 이용법을 가르쳐주는 등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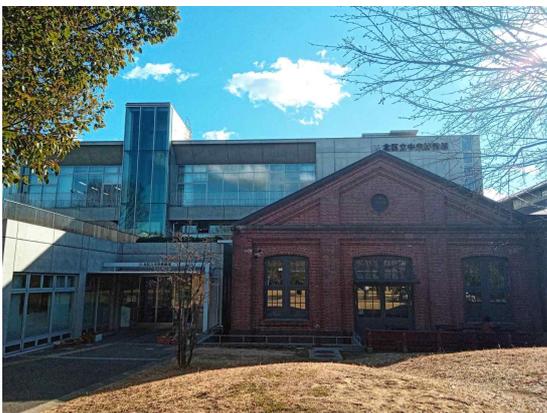


<그림 1> 일본국회도서관. 연구자 촬영.



<그림 2> 도쿄도립중앙도서관. 연구자 촬영.

연구를 위해 방문한 도서관 세 곳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일본국회도서관의 경우, 그 이름과 같이 일본 국회에 부속된 도서관으로서, 납본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일본에서 출판된 거의 모든 책을 찾아볼 수 있다. 여타 일반 도서관에서 찾아보기 힘든, 출판연도가 오래된 책, 희귀한 도서를 찾는 경우에 주로 이용하였다. 도쿄도립중앙도서관의 경우, 관내 PC를 활용해 다양한 신문사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언론 자료를 대거 수집했다. 19세기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이르는 아사히신문(朝日新聞),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등 우수 언론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도쿄기타구중앙도서관의 경우, 연구자의 숙소로부터 가까우며 주요한 2차 문헌을 충실하게 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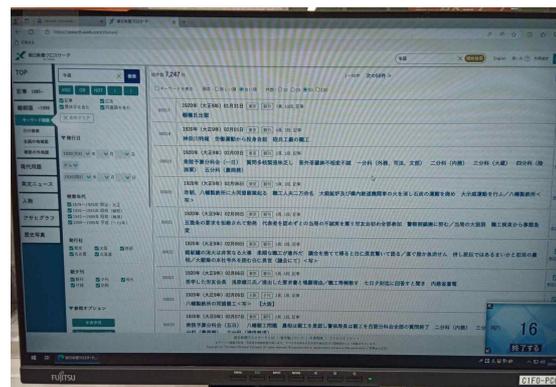
<그림 3> 도쿄도기타구중앙도서관. 연구자 촬영.



<그림 4> 국회도서관 회원증. 연구자 본인 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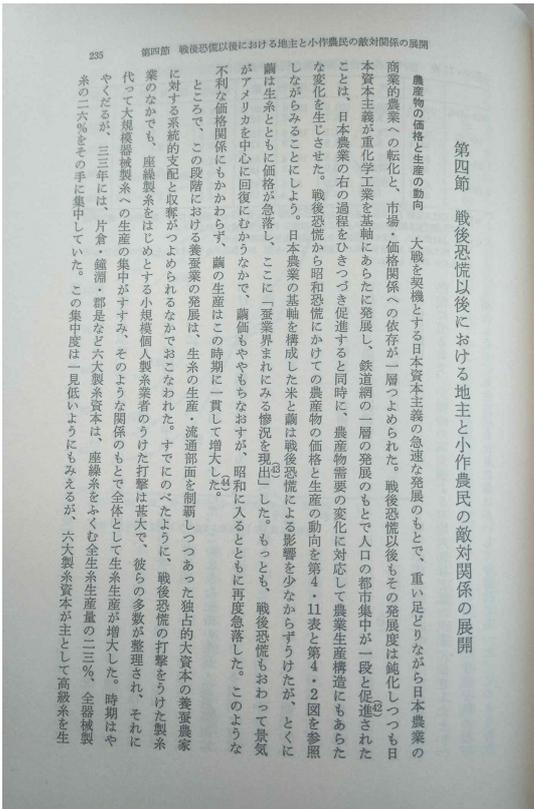
<그림 5> 도쿄도립도서관의 일일 이용증. 연구자 촬영.



<그림 6> 도쿄도립도서관의 온라인 DB.

자료 수집은 2차 문헌의 핵심 내용을 사진 촬영하고, 언론 자료의 경우 기사를 캡처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졌다. 일본국회도서관의 경우, 관내 사진 촬영이 전면 금지되어 있어 자료 내용을 컴퓨터로 옮겨 적는 방식으로 작업했다. 따라서 대다수의 자료 확보는 도쿄도립중앙도서관에서 이루어졌다.

축박한 시간 속에서 최대한 많은 양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는 평일에는 매일, 도서관 개관 때부터 저녁 식사 이전까지 이루어졌다. 주말에는 확보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논문 내용을 구상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그림 7> 수집 2차 문헌 예시. 연구자 촬영.



<그림 8> 수집 언론 자료 예시. 연구자 캡처.

<아시아연구소 현지조사 지원 사업>에 감사드리며

본격적인 비교 연구를 위해서는 한 국가의 도서관에서 수집한 자료만으로는 역부족이며, 반드시 비교 대상이 되는 타국의 자료를 필요로 한다. 비록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화가 잘 이루어진 21세기라고 하더라도, 현지에서만 접할 수 있는 학술서, 현지에서 무료 및 무제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현지조사는 중요성을 띠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연구소의 현지조사 지원사업 덕분에, 연구자는 학부 시절부터 꿈꿔왔던 한국과 일본의 사회경제사에 대한 비교사적 작업을 드디어, 본격적으로 실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원이 없었더라면 연구자의 논문은 한국 자료만을 최대한 끌어모은, 어딘지 아쉽고 부족한 반쪽짜리 연구가 되었을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현지조사라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주시고, 이를 위해 노력해주신 아시아연구소의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